

네일 대체 카드 꺼낸 KIA... '에릭 듀오'로 우승 완성

대만 리그 10승 에릭 스타우트 영입...정규 시즌 선발 로테이션 투입 이르면 9월 1일 데뷔전...스윙퍼 등 다양한 구종으로 탈삼진 능력 강점

KIA 타이거즈가 '에릭 듀오'로 우승을 완성한 듯하다.

KIA가 28일 제임스 네일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대만 프로야구리그(이하 CPBL)에서 활약한 좌완 에릭 스타우트(31)를 연봉 4만5000달러에 영입했다.

캠 알드레드에 이어 KIA의 시즌 두 번째 외국인 대체 선수다.

앞서 KIA는 우완 윌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자 5월 29일 좌완 알드레드(계약금 2만5000달러, 연봉 30만달러 등 총액 32만5000달러)를 대체 외국인 선수로 선택했다.

9경기에서 43.2이닝을 소화한 알드레드는 4.53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KIA는 지난 6일 박리그에서 36승을 거둔 좌완 에릭 라우어(계약금 5만 달러, 연봉 30만달러 등 총액 35만 달러)를 새로 영입했다.

이어 지난 24일 '에이스' 네일이 턱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자 KIA는 시즌 종료 1달을 남겨두고 다시 대체 외국인 선수 카드를 사용했다.

에릭 스타우트는 정규시즌이 마무리되는 9월 28일까지 KIA의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며 우승 행보

에 힘을 더하게 된다.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하게 된 에릭 라우어, 에릭 스타우트가 KIA의 막판 스퍼트를 이끌어야 한다.

라우어는 화려한 이력에 비해 앞선 3경기에서는 자신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네일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정규시즌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라우어의 역할은 더 커졌다.

스타우트는 '가을잔치'에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정규시즌 1위와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키다.

미국 일리노이주 글렌 엘린 출신의 스타우트는 신장 188cm, 체중 98kg의 체격을 갖췄으며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A)에서 6시즌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3경기에 나온 그는 24.2이닝을 던지면서 1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7.3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58경기(선발 21경기)에 등판해 16승 12패 14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점 4.63을 남겼다.

그는 CPBL에서는 2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 중신 브라더스 소속으로 20경기(선발 19경기)에 나

와 113.2이닝을 던지면서 2.77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 5패를 기록했다.

스타우트는 140km 중후반의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스윙퍼, 커터,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탈삼진 능력도 갖추고 있다. 스타우트는 트리플A 통산 9이닝당 8.4개, CPBL 통산 9이닝당 9.3개의 높은 삼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7일 입국한 스타우트는 28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이범호 감독과 선수단을 만났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성격도 활발하고 좋다. 짧은 기간이지만 던지게 해주려고 고맙다.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다는 말에서 의지가 느껴졌다. 팀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네일을 먼저 걱정해 주는 인사말도 좋았다"며 "앞서 리그를 소화하면서 이닝도 많이 던져왔고 시차도 없기 때문에 불펜 피칭 가볍게 한 뒤 팬츠를 하는 날짜를 잡으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빠르면 오는 9월 1일이 스타우트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스타우트는 지난 23일 등판에 나서 100구를 소화했다. 로테이션상 1일 등판 예정인 양현종이 27일 빗속에서 92개의 공을 던졌고, 삼성에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타우트가 이날 마운드에 투입 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비자 발급 시점이다.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스타우트가 바로 KIA의 우승 질주에 뛰어들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대체 외국인 선수 에릭 스타우트(오른쪽)가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에릭 라우어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단 상견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해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축구 남일부 목포시청 선수단의 경기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2211명 출전...전국체전서 올림픽 열기 잇는다

김해서 10월 11일~17일 광주 전용태·김국영 등 금 기대

'대한민국 최대 스포츠 축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선수단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에 광주는 총 1424명(선수 1081명, 임원 343명), 전남은 1748명(선수 1130명, 임원 61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회 총 49개 종목(정식 47, 시범 2종목)에 모두 출전한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인 12명의 광주·전남 소속 선수들 역시 모두 이번 체전에 나서 국내에서 올림픽 열기를 이어간다.

광주에서는 근대5종 전용태(광주시청), 펜싱 강영미·김재원(이상 광주시청), 유도 이혜경(광주교통공사),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더설)이 전국체전에 참가한다.

전남에서는 근대5종 서정완(국군체육부대), 세단뛰기 김장우·조영재(이상 국군체육부대),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복싱 임애지, 배드민턴 정나은(이상 화순군청)이 출전한다.

전남은 여자축구 국가대표 산실로 자리잡은 광양여고를 비롯해 무안군청 검도, 한국전력 럭비, 순천제일고 배구, 화순군청 복싱, 영암군청 씨름, 순천시청 양궁·소프트테니스 등의 전력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김국영·고승환·정혜림(광주시청) 등이 출전하는 육상과, 광주여대·광주은행 양궁 등이 금메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남체육회장은 "지난 대회에서 광주가 1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점수 획득에 더 초점을 맞춰 10위권 안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직장운동경기부 개편과 대학부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했다. 지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회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선수단은 강도 높은 집중 훈련을 통해 우수성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우리 선수단을 꼭 끌어안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축구, 야구·소프트볼 등 27개 종목에 대한 대진추첨이 진행된다. 이날 대진표에 따라 지역 선수들 간 1차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그린카드' 도입 KOVO, 국제 규정 맞춘다

비디오 판독 세트당 1회→2회 AI 판독 시스템 개발도 추진

국내 프로배구의 선진화를 위한 판독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다가올 2024-2025시즌 V리그에 국제 대회에서 시행 중인 규정을 반영해 리그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KOVO는 그간 국내 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 규칙과 국내 로컬 룰 간의 차이점 등을 논의해왔다.

비디오 판독은 기존에는 세트 당 1회 가능했지만 세트 당 2회로 증가했고, 랠리 종료 후에만 판독 신청할 수 있었지만 랠리 중간 심판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반칙에 대해 즉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KOVO는 해당 규정들을 오는 9월 21일 남자부 경기로 시작되는 컵대회에 시범 도입한 후 V리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불필요한 비디오 판독 시간 단축을 위한 '그린카드' 제도가 2024-2025 V리그부터 적용된다.

FIVB에서 2023년부터 도입한 그린카드는 비디오 판독 요청 시 주심의 판독 시그널 전 먼저 인정하고 손을 드는 선수에게 점수가 부여되는 제도다.

KOVO는 그린카드의 누적 점수를 정규리그 시상 부분 내 페어플레이상의 선정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KOVO는 정확한 비디오 판독 진행을 위해 AI 기반 판독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비디오 판독 항목별 관련 기술을 검토하는 등 개발 초기 단계지만,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근대5종 선수단, 전국대회 '메달 잔치'

광주·전남 근대5종 선수단이 '제2회 대한체육회 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모두 입상했다.

남초부A조 2종 경기에서는 장성 사창초 이태운과 이강윤이 나란히 1위와 2위에 올랐다. 이들은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체중은 여중부 3종 단체전(이루리·양보민·송현서·한다예)에서 정상에 올랐고, 여중부 릴레이(송현서·양보민·이루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루리는 여중부3종 경기 개인전에서 은메달도 획득했다.

전남체고 김영하는 남고부4종에서 펜싱, 수영, 레이저런 합계 1202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남체고는 남고부에서 3종 단체전(최현규·박인욱·김강영)과 릴레이(김영하·조민우·허민준)에서 은메달, 남고부 4종 단체전(김영하·허민준·조민우·곽동규)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남고부 릴레이(방준서·전태환·최지웅)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일반부 선수단의 활약도 이어졌다.

전남도청은 혼성 4종 릴레이에서 이은석과 김선진이 1033점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일부 4종 단체전(이동기·조예준·이은석)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 근대5종 실업팀 송학건설(김은욱·이재민·조하은)은 여일부 4종 단체전 은메달과 여일부 릴레이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인제에서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화)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피어오르다

2024. 8. 16(화) ~ 9.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